



남성의학 전문의 조철희의
술직, 대담한 性

'삼각팬티' 보다는 '트렁크'를

성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발기력이 감소했다
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
이 "예전처럼 활발하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, 발
기력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'자연적' 방법이 있
느냐"는 것이다. 한마디로 세월의 흐름을 거부
하겠다는 것인데 지나친 욕심 아닌가.

성호르몬 분비를 자극시키며 원활하게 해준
다.
고환을 꼭 쥐었다 놓기 등을 반복하는 것도 호
르몬 분비 기능을 자극시킨다. 가능한 서늘한 곳
을 좋아하는 고환의 특성을 활용한 방법이다. 고
환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 음낭에 얼음 마사지,
냉수욕을 하는 행위는 병원에서 불임 치료의
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.

상되면서 발기 신경이 자극을 받아 성기능을 강
화시키는 효과가 있다.
발기·배뇨·배변을 조절하는 역할은 동일한
자율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. 이 때문에 이 신경
이 지배하는 근육 운동을 계속하면 3가지 기능
이 함께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
수영도 혈액 순환,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
과가 있다.
한방에서는 발바닥의 음푼 패인 부분을 심장·
신장, 성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데
이 부위를 압박해 주면 정력에도 효과적이고 심
장과 신장을 기능을 향상시킨다. 이같은 운동을
매일, 꾸준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.

함께 풀어봅시다 < 282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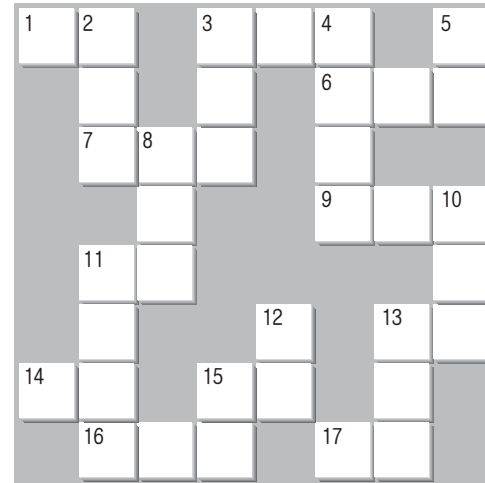
→ 가로풀이

1. 약한 세력이나 기세, 또는 시세가 하락하는 경
향에 있는 것. 또는 그런 자세(場勢). 3. 어떤 것을
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는 사람. 기능 ~. 6. 원
금과 이자를 합친 돈. ~을 상환하다. 7. 차원의 수
가 높은 것. 길이와 폭이라는 두 방향으로 넓이를
이뤄 내는 평면 같은 것. 9. 권문세사에서 사적(私
的)으로 부리던 노비. 11. 반질반질하고 매끄러운
기운. ~가 흐르는 머리. 13. 일정한 질서나 제도를
유지하기 위해 정해 놓은 행동의 준칙이 되는 본
보기. 14. 삶과 죽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. ~가 걸린
문제. 15. 끈과 따라는 뜻으로 둘 이상을 서로 연결
하거나 결합하게 하는 것. 또는 그런 관계. 16. 개별
주식이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고 한도의 가격. 경
기 부양책이 전해짐에 따라 여러 종목의 주식
이 ~를 기록했다. → 상승가. ↔ 하한가. 17. 어떤 사

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
함. ~에 빠지다.

↓ 세로풀이

2. 선거에서 유세 등을 통해 자신의 지지 세력을
늘리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. 3. 부모나 보호자
가 없는 아이들을 받아들여 기르거나 가르치는 곳. →
고아원. 4.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서서
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애쓰는 일. 5. 집이나
토지 등을 매각한 값을 여러 번 나누어 치르는 일
에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돈을 이르는 말. 8. 화물차
한 대분의 상품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일. 또는 그
렇게 하기 위한 흥정. 10. 들인 노력에 비해 얻어진
결과가 보잘것없거나 적음. ↔ 효율. 11. 중생은 끊임
없이 삼계 육도를 돌고 돌며 생사를 거듭한다고
보는 사상. 12. 비행기 부대 구성 단위의 하나. 2~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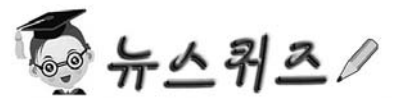


대의 비행기로 이루어진다. 13. 조선 정조 즉위년
(1776)에 설치한 왕실 도서관. 역대 임금의 글이나
글씨·고명(顧命)·유교(遺教) 6선보(端譜)·보
감(寶鑑) 등과 어진(御眞)을 보관하고, 많은 책을
편찬·인쇄·판포해 조선 후기의 문운(文運)을 불
러일으키는 중심 역할을 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
때 폐지됐다. 15. 석유의 가격.



<함께 풀어봅시다 281회 정답>

- ▲지난주 정답자
유나경·광주시 서구 유충동
윤영미·광주시 광산구 월계동
▲응모방법
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
회 1명씩 추첨, 상품권(2만원)을 선물로 드립니다.
▲보내실 곳 :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 광
주일보사 여문배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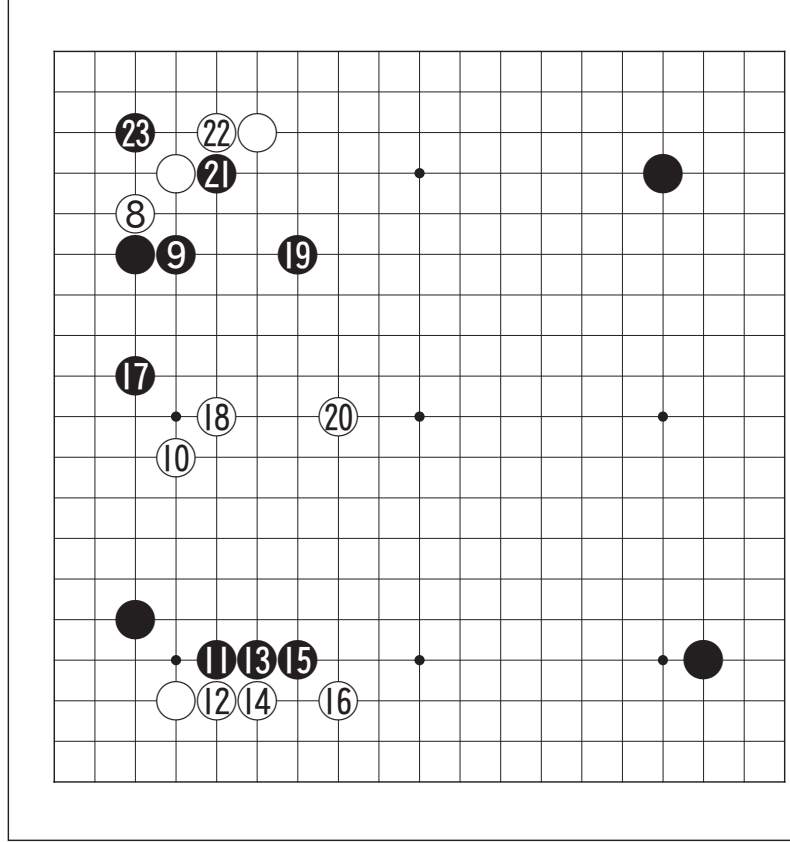
95. 미 시사주간 타임은 최근 '올해의 인물'로 러시아 대
통령을 선정했습니다.
혼란에 빠져 있던 러시아에 안정을 가져온 뛰어난 지도
력을 인정해 선정했다는 것이 리처드 스텐켈 타임 편집장
의 평가입니다.
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
① 블라디미르 푸틴 ② 알 고어
③ 힐러리 클린턴 ④ 버락 오바마

참여 방법

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
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, 1위 삼성전자 고급 진
공청소기 1대,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
립니다. (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)
보내실 곳
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
배부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-711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4일(음 11월 15일 壬辰)

Horoscope section for the day of 12/24 (11/15). Includes zodiac signs like 子 (Rabbit), 丑 (Ox), 寅 (Tiger), 卯 (Rabbit), 辰 (Dragon), 巳 (Snake), 午 (Horse), 未 (Goat), 申 (Monkey), 酉 (Rooster), 戌 (Dog), 亥 (Pig) and their respective fortunes.



제88회 진국체전
남녀 페어부
결승전
페어시합
의요령
2보(8~23)
영남일보 한국바둑리그 챔피언

바둑소식
영남일보 한국바둑리그 챔피언
지난해 끝까지 수모를 당했던 대구
영남일보가 2007 한국바둑리그 챔피언
에 올랐다. 영남일보는 23일 소공동
롯데호텔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7
한국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 2차전 3
국에서 승리, 한국바둑리그 포스트 시
즌 주인공이 됐다.

굿모닝 잉글리쉬 <1061>
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?
여가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?
A: It's the weekend tomorrow.
B: That's right.
A: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?
B: I like outdoor activities.
A: What kinds?
B: Fishing and camping.
A: You have a good hobbies.
A: 내일부터 주말이네요.
B: 그렇군요.
A: 여가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?
B: 야외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.
A: 어떤 건가요?
B: 낚시와 캠핑입니다.
A: 좋은 취미네요.
* How do you spend your weekends?
= 주말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?
* That sounds fun. = 재밌을 것 같네요.

오하오우 니혼고 <1061>
旅行社(ぎょうしゃ)に問(と)い合(あ)わせたら。
여행사에 문의해 봐
A: 卒業旅行(そつぎょうりょこう)に行(い)こうと思(おも)う
んだけど。
B: 何日(なんにち)ぐらい?
A: 一週間(いっしゅうかん)ぐらい。まだ計画(けいかく)立
(た)ててないんだ。
B: 旅行社(ぎょうしゃ)にまづ問(と)い合(あ)わせたら。
A: そうだね。
A: 졸업여행 가려는데.
B: 며칠 정도?
A: 일주일 정도. 아직 계획 세운 건 아니고.
B: 여행사에 우선 문의해 봐.
A: 그래야겠어.
まだ: 아직
計画(けいかく): 계획
問(と)い合(あ)わせる: 문의하다

니하오 쑹구위 <38>
那是谁的照相机?
저것은 누구의 카메라니?
A: 那是谁的照相机?
Ná shì shuí de zhàoxiàngjī?
타 스 쉐미 데 짜오쑹쟝기?
B: 那是妈妈的照相机。
Ná shì māmā de zhàoxiàngjī.
타 스 마마 데 짜오쑹쟝기.
A: 你没有照相机吗?
Nǐ méi yǒu zhàoxiàngjī ma?
니 메이 요우 짜오쑹쟝기 마?
B: 没有。
méi yǒu.
메이 요우.
A: 저것은 누구의 카메라니?
B: 저것은 엄마의 카메라야.
A: 너 카메라 없어?
B: 없어.
誰的 [shuí de] 누구의
没有 [méi yǒu] 없나

한자 이야기 <678>
甘香苦吐(감탄고토)
달 감, 삼킬 탄, 쓸 고, 뱉을 토
감탄고토(甘香苦吐)는 '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'는 우리말
의 속담과 같은 말로, 이치와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않고 자신
에게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, 불리하면 내치는 태도를 비유한
다.
'감탄고토'는 흔히 친구사이에서 생기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
에 이를 경계하는 화도 많다. 그 중 나무와 그 친구들인 달과
바람과 새의 관계가 흥미롭다.
나무에게 있어 달은 언제나 늘 함께 있어주는 변함없는 다정
한 친구이다. 반면에 바람은 아주 변덕스럽고 수다스러운 민지
못할 친구이다. 마음 내키면 찾아왔다가 때로는 살짝 스쳐 지나
가지만 때로는 세차게 불어와 흔들고 가기 때문이다. 새도 마음
내킬 때 찾아와 동지를 틀었다가도 어느새 날아가 버리는 믿음
직스럽지 못한 친구이다. 하지만 나무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
달은 달대로, 새는 새대로,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좋은 친구
로 대한다. (耳談雜纂)
진정한 사람은 나무처럼 사사로운 이익의 옳고 그름을 따지
기 보다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하는 것이라. 오륜(五
倫)의 덕목인 봉우유신(朋友有信)을 실천하는 사람을 되새겨
본다.